



청년주거 제안, 온통청년에서 계속 받는다

- ‘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’ ‘온통청년’에서 청년층 대상 부동산·주거 정책 제안 접수는 계속 이어가

- 국무조정실(실장: 임기근)은 청년세대의 부동산 및 주거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자, 오는 8월 24일부터 ‘온통청년(youth.go.kr)’ 내에 ‘청년주거제안’ 전용 소통 창구를 개설·운영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‘청년주거제안’ 개설은 청년주택 청약·대출·세제, 결혼패널티, 청년 월세지원사업 등에 관한 청년들의 다양한 제안과 건의를 접수하기 위한 목적이다.
 - 제안된 의견은 기존 온통청년의 ‘청년신문고’ 답변 시스템과 연계하여, 담당 부처의 검토와 국무조정실의 추가 조정 등을 거쳐 답변을 제공할 계획이다. 아울러 단순 의견수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.
 - 국무조정실은 더 많은 청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통청년, 청년인재 DB 및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주요 청년 소통 채널을 통해서도 참여를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.
- 국무조정실 김달원 청년정책조정실장은 “주거 문제는 청년들의 삶의 질과 결혼·출산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청년 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”라며,
 - “ ‘청년주거제안’을 통해 청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생생한 고민과 참신한 아이디어가 청년 주거 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청년정책협력관실 청년정책소통팀	책임자	팀 장 유호석 (044-200-6332)
		담당자	사무관 박익태 (044-200-6346)

